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코드: DP286]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B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다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기준가격 산정관련 위험,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주식관련 사채 및 비상장 주식 투자위험, 선순위 대출 투자위험 및 중소 · 중견기업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상장 및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지분 및 메자닌 등에 투자하는 7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피투자 사모펀드"라 한다)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7개 피투자 사모펀드는 현재 미설정 상태로, 설정 이후에는 뉴딜 관련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운용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성장금융이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설계 및 자문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공모펀드 운용사 5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공모펀드 운용사와 공동으로 최종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6개사(7개 펀드)를 선정했습니다. 이때, 한국성장금융과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5개 운용사는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뉴딜 분야 투자 발굴을 위해 피투자 사모펀드 선정 시 운용사의 재무 건전성, 경영 안정성, 운용 인력의 투자성과, 뉴딜 분야 투자전략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투자대상 사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후순위 출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펀드로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손실(약 20% 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 수준 수익을 더 많이 배분 받게 됩니다. 또한,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로 인해 일정 수준의 손실(약 20% 수준)을 방어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출자자가 배분 받는 수익 대비 더 적은 수익을 배분 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다수의 피투자 사모펀드 선순위 증권에 투자하는 선순위 출자자로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실이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비율(약 20%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 할 경우 선순위 출자자인 이 투자신탁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출자자의 우선 손실 부담은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20%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판 뉴딜이란?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구조를 혁신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정부 정책 프로젝트로 디지털 혁신, 친환경 경제·사회 구축 및 사회 안정망 형성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자 될 예정 · 디지털 뉴딜: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경쟁력 강화 ·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뉴딜 관련 기업: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내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분야에 속하는 DNA, 뉴딜 서비스, 친환경 녹색산업, 미래차·그린모빌리티, SOC·물류디지털, 스마트제조·스마트팜의 6대 핵심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업, 뉴딜 관련 벤처기업(AI기업, 친환경 기업 등) ※ 한국판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①정책형 뉴딜펀드(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②뉴딜 인프라펀드(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 부여) ③민간 뉴딜펀드(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의 다층적 펀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로 참여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정책금융, 기관투자자, 국민 참여로 역할을 분담하여 펀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부재정의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는 정부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일반 국민의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뉴딜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3종(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한국판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로 1,000억원 규모가 추가조성됨에 따라 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제2호』입니다. 또한, 정부재정의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해주는 구조의 펀드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가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의 [별첨] 및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 폐쇄형(환매가 불가능한 투자신탁), 단위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4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70%이내	0.780	0.400	1.030	1.680	240	415	597	7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980	0.600	1.240	1.880	192	389	592	802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3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이 집합투자기구의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보수·비용은 C 클래스에 가입한 투자자가 A 클래스(선취판매수수료 0.7% 징구 가정)에 가입한 투자자보다 더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부담하게되는 총보수·비용 차이 등을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합성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다수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 비중 투자를 가정하여 평균으로 약 연 0.90%를 산정)를 포함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58-p.5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1-12-13					
수익률 변동성	2021-12-13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혼합자산)(%)				운용경력년수
			펀드수 (개)	규모 (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덕주	1973년	책임	21	1,076	0.45	5.97	0.45	5.97	15년 7개월
김세희	1984년	부책임	23	5,963	-	-			9년 6개월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 이후 90일 이내)합니다.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결과에 따라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투자 사모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및 금전차입 한도 등에 따른 레버리지 수준은 일반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제한 요건이 배제되어 특정 종목, 섹터 또는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전부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 · 후순위 출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손실(후순위 출자 금액 한도, 피투자 사모펀드 설정액의 약 20% 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 수준 수익을 더 많이 배분 받게 됩니다.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로 인해 일정 수준의 손실(후순위 출자 금액 한도, 피투자 사모펀드 설정액의 약 20% 수준)을 방어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출자자가 배분 받는 수익 대비 더 적은 수익을 배분 받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피투자 사모펀드 선순위 증권에 투자하는 선순위 출자자로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실이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비율(약 20%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 할 경우 선순위 출자자인 이 집합투자기구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출자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전체 손실을 기준으로 우선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의 일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 투자위험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주식, 채권, 메자닌 등) 등의 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결과에 따라 매우 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 및 금전차입 한도는 최대 400%까지 허용되어 일반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파생상품, 금전차입 등에 따른 레버리지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제한 요건이 배제되어 특정 종목 또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시장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정가격을 산출하여 기준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기구가 산정한 공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일정기간(주간, 월간 등) 동안 1번씩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는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투자자산이 공정가격으로 평가될 경우 또는 적시에 기준가격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에 실제 시장가치와 일정기간 동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뉴딜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펀드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 사채 및 비상장 주식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주식관련 사채(메자닌 증권) 및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합니다. 주식관련 사채 등 메자닌 증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발행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 위주로 발행됩니다. 또한, 메자닌 증권은 일반 채권 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신용경색 등의 시장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자산 등의 매각이 지연되어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에 상장 되어도 일반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지분매각, IPO 등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나 전반적인 시장침체로 인한 공모주 시장의 침체, 상장요건 미충족, 대주주 철회, 기타 소송 및 외부 변수 등으로 IPO가 무산되거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의 변화 및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는 곧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 및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 투자위험	선순위 대출채권 투자 시 투자대상 회사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설정할 예정이나 자산의 매각을 통한 전체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대출채권의 신용도나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발생, 대출채권의 조기상환, 대출채권 담보자산의 매각이 불가능 하거나 지연될 경우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만기가 연장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사업위험과 재무적 위험을 지니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초기개발단계에 있거나 영업손실 또는 변동성이 큰 영업성과를 보일 수 있고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 중소·중견기업들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자 할 때 경쟁이 매우 심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특정기술을 최초로 상용화는 능력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본이 요구되며 기존 기업 및 경쟁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업 및 경제환경에 대한 이들 기업의 대응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어떤 life cycle 단계에서도 실패하거나 상당한 가치하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이미 자리잡은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큰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유가증권은 개별기업의 재무구조에 있어서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며 이에 큰 손실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금 지급 지연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만기가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48개월)인 **폐쇄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청구가 불가능한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의 만기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매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하여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연장이 결의된 경우에도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이 주식관련사채(메자닌 증권) 및 상장·비상장 주식이므로 해당 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하여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매각이 어려운 자산인 경우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거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이 투자신탁 또한 증권시장 상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투자신탁 최초설정일(2021년 12월 13일)의 기준가격	**환매방법**	환매금지형으로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 ·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계좌 · 클래스 · 펀드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67-82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kbam.co.kr)	
모집기간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모집 매출 총액: 1억 좌
효력발생일	2022년 06월 30일	존속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15일까지 ※ 다만,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등이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전부 상환 또는 매각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그 상환금이 전부 회수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15영업일 이내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정하여 공시하는 날까지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63~6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3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3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판매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별첨] 이 투자신탁의 투자 구조 등에 관한 사항

[한국판 뉴딜 펀드 투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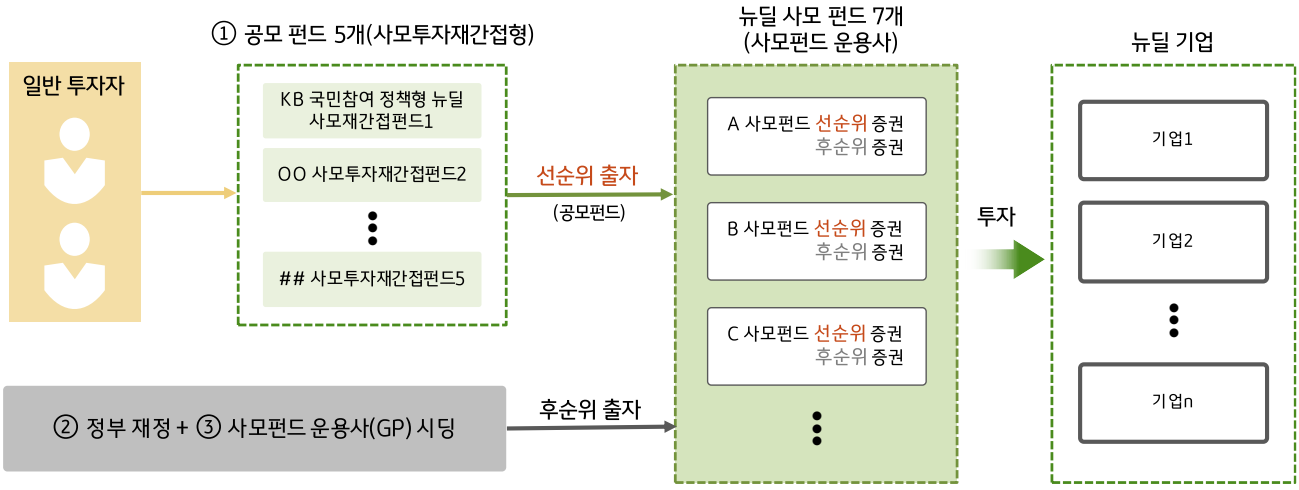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3종(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한국판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로 1,000억원 규모가 추가조성됨에 따라 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입니다.
- 한국판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활용하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①정책형 뉴딜펀드(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②뉴딜 인프라펀드(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 부여) ③민간 뉴딜펀드(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의 다층적 구조로 설계된 정부 주도의 국민참여 정책형 펀드입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 구조>

※ 이 투자신탁이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로 참여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정책금융, 기관투자자, 국민 참여로 역할을 분담하여 펀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부재정의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는 정부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일반 국민의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뉴딜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정부재정의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해주는 구조의 펀드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가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구조(예시)]



※ 피투자 사모펀드 출자금액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총 모집(판매)금액에서 유동성 및 보수 등 비용을 제외한 출자금액 기준으로 실제 공모펀드 판매금액과 피투자 사모펀드에 최종적으로 출자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익배분 구조(예시)]

- 선순위·후순위 출자구조에 따라 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손익	배분순서
이익	선순위 원금 → 후순위 원금 → 선순위 수익(기준수익*까지) → 후순위 수익(기준수익*까지) → 초과수익 안분**(선순위 4 : 후순위 6) * 기준수익: Multiple((회수총액/출자총액) - 1) = 20% ** 후순위내 안분 비율 - 재정 7 : 사모운용사 3
손실	후순위 원금 → 선순위 원금

※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후순위 출자구조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차등하여 배분하는 구조로,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실이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비율(약 2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 출자자인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출자자의 우선 손실 부담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20%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금액은 선순위 출자자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실제 투자자의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수익률에 따른 선순위 수익률(예시)]

구분	수익률 구간 예시												
피투자 사모펀드 수익률	100%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100%
선순위 수익률	60.8%	35.3%	30.2%	25.1%	20.0%	12.8%	0.0%	0.0%	0.0%	-10.7%	-23.5%	-36.2%	-100%

※ 상기 예시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1개)의 수익률에 따른 선순위 예상 수익률을 나타낸 것으로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에서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1개)에 투자하는 투자 비중에 따라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상기 예시는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의 후순위 출자 비중 1.6%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 출자 비중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수익률에 따른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예시)]

01 일부 펀드에서 원금 전액 손실 발생한 경우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0%	0%	14.3%	0%
사모펀드2	0%	0%	14.3%	0%
사모펀드3	0%	0%	14.3%	0%
사모펀드4	0%	0%	14.3%	0%
사모펀드5	-100%	-100%	14.3%	-14.3%
사모펀드6	-100%	-100%	14.3%	-14.3%
사모펀드7	-100%	-100%	14.3%	-14.3%
합계	-43%		100%	-43%

- 피투자 사모펀드 5~7의 경우 해당 펀드 후순위 원금을 초과하여 전액 손실 발생
- 이 경우 해당 펀드의 손실이 전액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수익률에 영향

02 일부 펀드에서 후순위 한도 내 손실 발생 시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0%	0%	14.3%	0%
사모펀드2	0%	0%	14.3%	0%
사모펀드3	0%	0%	14.3%	0%
사모펀드4	0%	0%	14.3%	0%
사모펀드5	-10%	0%	14.3%	0%
사모펀드6	-10%	0%	14.3%	0%
사모펀드7	-10%	0%	14.3%	0%
합계	-4%		100%	0%

- 피투자 사모펀드 5~7의 경우 해당 펀드 후순위 원금 한도 내 손실 발생
- 이 경우 해당 펀드의 손실이 전액 후순위로 충당되어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수익률에 영향 없음

03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이익 발생 시(수익률 다양한 경우)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80%	50.6%	14.3%	7.2%
사모펀드2	80%	50.6%	14.3%	7.2%
사모펀드3	80%	50.6%	14.3%	7.2%
사모펀드4	80%	50.6%	14.3%	7.2%
사모펀드5	10%	12.8%	14.3%	1.8%
사모펀드6	10%	12.8%	14.3%	1.8%
사모펀드7	10%	12.8%	14.3%	1.8%
합계	50%		100%	34.4%

-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기준수익 이상 성과 시 해당 초과수익 배분
-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기준수익 이하 성과 시 해당 수익 전액 선순위 배분

04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이익 발생 시(동일 수익률)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100%	60.8%	14.3%	8.7%
사모펀드2	100%	60.8%	14.3%	8.7%
사모펀드3	100%	60.8%	14.3%	8.7%
사모펀드4	100%	60.8%	14.3%	8.7%
사모펀드5	100%	60.8%	14.3%	8.7%
사모펀드6	100%	60.8%	14.3%	8.7%
사모펀드7	100%	60.8%	14.3%	8.7%
합계	100%		100%	60.8%

- 피투자 사모펀드가 기준수익 초과 달성 시 해당 초과수익분은 선순위(4):후순위(6) 안분

※ 상기 예시는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의 후순위 출자 비중 1.6%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 출자 비중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회계감사비용(계약기간동안 약 5%수준 비용발생 예상) 등에 따라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기 수익률 예시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와의 수익률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사모펀드가 수행하는 주요 전략(예시)]

- 상장주식 투자: KOSPI 및 KOSDAQ에 상장된 뉴딜 관련 기업 중 저평가, 고성장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전략
- 메자닌(Mezzanine) 투자: 투자 대상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상환우선주(RCPS)에 투자하여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전환 시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전략
- 비상장주식(Pre-IPO) 투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거나 상장계획이 있는 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하여 상장 시 차익실현을 하거나 세컨더리 마켓을 통한 수익실현을 추구하는 전략
- 선순위대출(PDF): 대상기업에 지분이 아닌 대출과 채권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인수금융을 위한 선순위 대출로 투자대상 한정

※ 상기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피투자 사모펀드의 주요 전략을 예시로 설명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일부 전략에 집중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피투자 사모펀드에 관한 사항(예시)]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7개 피투자 사모펀드는 현재 미설정 상태로, 설정 이후에는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운용사 별 뉴딜 투자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블라인드 방식(투자대상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시황에 따라 투자대상 선별)으로 운용됩니다.
-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는 최대 약143억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 피투자 사모펀드 개요

<table>
<tr><th>운용사</th><th>펀드명(가칭)</th><th>포트폴리오 구성방안</th></tr>
<tr><td>멀티에셋</td><td>멀티에셋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td><td>- 주목적 투자전략: 신규 중심의 메자닌 투자전략
- 투자대상: Growth 및 Pre-IPO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뉴딜 관련 기업 발굴 장 이후 메자닌 → 상장 이후 추가적인 자금 수요 발생 기업 발굴
- 투자형태: 회수 안정성이 높은 Mezzanine을 주력으로 투자, 투자 이후 이벤트(경영진 변경, M&A 등) 발생 대비한 통제 수단 마련(Tag-Along 등)
- 비주목적 투자전략: 구주 중심의 Pre-IPO 투자전략
- 회수 안정성이 높은 Mezzanine을 주력으로 투자, 딜소싱 환경 및 리스크 대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구주/신주 병행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td><td>40~60 % 수준</td><td rowspan="2">-</td><td>40~60 %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40~60 % 수준</td><td>40~60 % 수준</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r><td>기술하드웨어와 장비</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r><td>디스플레이</td><td></td><td>20% 수준</td><td></td><td></td></tr>
<tr><td>자동차와부품</td><td></td><td></td><td></td><td>20% 수준</td></tr>
<tr><td>전기통신서비스</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r><td>전자와 전기제품</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able>
</td></tr>
<tr><td>신한</td><td>신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td><td>
- 상장사 지분(유상증자 및 신규자금 유입형태) 및 메자닌, 비상장사 지분(구주 포함) 및 메자닌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되 뉴딜관련 인수금융 선후순위, 상장주식 및 상장지수 펀드에 일부 투자
- 투자 대상 발굴을 위해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한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뉴딜 관련 기업을 발굴할 예정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10개를 중심으로 하여 총 28개의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할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h>기타</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colspan="2">50% 이하 수준</td><td colspan="2">30% 이하 수준</td><td rowspan="2">40% 이하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 colspan="2">70% 이하 수준</td><td colspan="2">50% 이하 수준</td></tr>
<tr><td colspan="6">섹터구분</td></tr>
<tr><td>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기술하드웨어와 장비</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디스플레이</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반도체와 반도체 장비</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상업서비스와 공급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소재</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자동차와 부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자본재</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전기통신서비스</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전자와 전기제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에이원</td>
<td>에이원 뉴딜 메자닌 일반 사모 투자신탁</td>
<td>
- 상장사가 발행한 메자닌증권에 대해서 Case by Case로 검토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투자 검토
- 채권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기업에 한하여 비즈니스 모델, 업종,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진 등의 정성적인 평가 진행
- 투자 회수는 메자닌증권 발행회사의 정성적, 정량적인 부분 검토 및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대표이사(CIO)와 담당 팀의 주관 하에 운용본부 전체 회의를 통해 회수 여부 결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20% 이내 수준</td><td rowspan="2">60% 이상 수준</td><td rowspan="2">10% 이내 수준</td><td rowspan="2">10% 이내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정보기술</td><td>5% 수준</td><td>35% 수준</td><td rowspan="3">5% 수준</td><td rowspan="3">5% 수준</td></tr>
<tr><td>커뮤니케이션서비스</td><td>5% 수준</td><td>5% 수준</td></tr>
<tr><td>건강관리</td><td>5% 수준</td><td>5% 수준</td></tr>
<tr><td>에너지</td><td rowspan="9">5% 수준</td><td rowspan="9">15% 수준</td><td rowspan="9">5% 수준</td><td rowspan="9">5% 수준</td></tr>
<tr><td>소재</td></tr>
<tr><td>산업재</td></tr>
<tr><td>자유소비재</td></tr>
<tr><td>필수소비재</td></tr>
<tr><td>금융</td></tr>
<tr><td>유틸리티</td></tr>
<tr><td>부동산</td></tr>
</table>
</td>
</tr>
<tr>
<td>파인밸류</td>
<td>파인밸류 성장뉴딜 PreIPO 9호 일반 사모투자신탁</td>
<td>
- 주목적 투자: 80% 이상
- 디지털, 환경 에너지 분야 비상장 기업에 2년 이상 메자닌 투자
- 투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일부 상장 기업 투자
- 비주목적 투자: 20% 이하
- 최대한 주목적 투자에 집중
- 신, 구주 패키지 딜: 신주 투자의 유인으로 구주 투자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8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8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16% 미만 수준</td><td rowspan="2">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64% 이상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16% 미만 수준</td><td>64% 이상 수준</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섹터구분</td><td></td><td></td><td></td><td></td></tr>
<tr><td>의료/정밀기기</td><td rowspan="4">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 rowspan="2">8% 내외 수준</td><td rowspan="4">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16% 내외 수준</td></tr>
<tr><td>IT H/W</td><td>16% 내외 수준</td></tr>
<tr><td>IT S/W</td><td rowspan="2">8% 내외 수준</td><td>16% 내외 수준</td></tr>
<tr><td>기타</td><td>16% 내외 수준</td></tr>
</table>
</td></tr>
<tr><td>밸류시스템</td><td>밸류시스템 뉴딜 2022 사모투자신탁</td><td>
- 코어전략(안정성): 글로벌 선도기업 및 본격 성장기업 메자닌 70% 투자
* 글로벌 선도기업: 뉴딜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을 이미 출시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
* 본격 성장기업: 딜 관련 투자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성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
- 카운터 전략(수익성): 성장초기기업 및 신사업 진출 기업의 상장 메자닌, 비상장 주식 등에 30% 투자
* 성장 초기기업: 뉴딜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벤처기업
* 신사업 진출기업: 기존 사업 이외에 뉴딜 관련 분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7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7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5% 수준</td><td>60% 수준</td><td>10% 수준</td><td>10%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2% 수준</td><td>48% 수준</td><td>10% 수준</td><td>10% 수준</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td><td>3% 수준</td><td>21% 수준</td><td>3% 수준</td><td>3% 수준</td></tr>
<tr><td>기술하드웨어와 장비</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디스플레이</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반도체와 반도체장비</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상업서비스와 공급품</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소재</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자본재</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전자와 전기제품</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디에스
(디지털)</td>
<td>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td>
<td>- 디지털 뉴딜로 인해 변화될 핵심 요소들을 선정 후, 관련 핵심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 계획
* 디지털 뉴딜 정의: 데이터 활용도 혁신을 통한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 정책/경제 · 사회 Fundamental이 한 단계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창업자 등 네트워크, 기존 포트폴리오 보유 기업, 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딜 소싱 계획
- 디지털 뉴딜 관련 비상장기업에 70%이내, 디지털 뉴딜 관련 상장기업에 30% 이상 투자할 계획
- 능동형 컴퓨팅, 지능형 데이터분석, 고부가 서비스, 차세대 무선통신 미디어, 스마트 헬스케어 섹터 등에 분산 투자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100% 수준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100% 수준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td><td rowspan="2">30% 이상 수준</td><td rowspan="2">70% 이내 수준</td><td rowspan="2">-</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능동형컴퓨팅</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지능형데이터분석</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고부가서비스</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스마트헬스케어</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able>
</td>
</tr>
<tr>
<td>디에스
(그린)</td>
<td>디에스 GND 일반 사모투자신탁</td>
<td>- 그린 뉴딜로 인해 변화될 핵심 요소들을 선정 후, 관련 핵심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 계획
* 그린 뉴딜 정의: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는 핵심 인프라 요소의 변화/환경적 목표 넘어, 혁명적 수준의 경제 혁신 야기할 정책
- 창업자 등 네트워크, 기존 포트폴리오 보유 기업, 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딜 소싱 계획
- 그린 뉴딜 관련 비상장기업에 70%이내, 그린 뉴딜 관련 상장기업에 30% 이상 투자할 계획
- 차세대 동력장치,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발전, 에너지 저장 및 효율 향상,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 차세대 치료 등에 분산 투자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100% 수준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100% 수준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td><td>30% 이</td><td>70% 이</td><td>-</td></tr>
</table>
</td>
</tr>
</table>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상 수준	내 수준	
		섹터구분				
		차세대 동력장치		20% 수준		
		차세대치료 등		20% 수준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		20% 수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발전		20% 수준		
		에너지 저장 및 효율향상		20% 수준		

※ 피투자 사모펀드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의 내용은 해당 운용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해당 운용회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